

[심의 총평] 창작자과정 - 음악

○ 일시 및 장소

- (1차 서류심의) 2018. 4. 2(월) 14:00 / 아르코미술관 세미나실
- (2차 인터뷰심의) 2018. 4. 10.(화) 14:00 / 예술가의집 세미나실3

○ 심의위원(가나다순) : 구모영, 임준희, 최우정

<서류 심의>

○ 무대음악

오페라 장르에 국한하지 않고 무용음악, 음악극 등으로 극음악 분야를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관심분야의 작곡가들이 지원한 점은 고무적이라 할 것이다.

그러나 아직 극음악에 대한 이해와 언어와 음악과의 관계, 오케스트레이션에 관한 음악적 역량이 미흡한 지원자가 많아 이에 대한 준비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. 선정된 지원자는 작품개발의 구체성과 극음악적 역량에 집중하여 선정하였다.

○ 융합음악

지원자들이 전반적으로 국악, 서양 융복합 음악에 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, 구체적인 사업실행에 관한 계획이 부족함이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다. 국악의 본질을 이해하고 창의적이며 독창적인 융복합이 가능한 작곡가를 중점적으로 선별하였다.

<인터뷰심의>

○ 무대음악

올해부터 오페라분야가 무용음악, 음악극이 포함된 무대음악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지원자들을 접하게 된 것은 고무적이다. 지원자와의 면접과정에서 오페라와 무용음악에 대한 관심과 열정, 음악적 잠재력은 풍부하나, 보다 심도있는 오페라와 극음악에 대한 학습과 고민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고, 보다 구체적인 학습계획이 요구된다.

○ 융합음악

융복합 작품에 대한 경험, 고민과 구체적인 작품 수행 계획 및 결과물에 대한 확신이 있는 지원자를 중점적으로 선정하였다. 대체적으로 아카데미 과정에 대한 열의를 볼 수 있었으나 기본적인 음악 지식과 기보법에 대한 선행학습과 준비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.